모든 순간이 감동이다
www.hyosunglexus.com
LEXUS
All New ES 300h
광주전시장 080-384-7733 | 전주전시장 080-263-7743

光州日報

우암학원 창학66주년
광주의 새로운 명문대학교
남부대학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20183호 1판 (음력 1월 11일) 2016년 2월 18일 목요일

더민주 광주 경쟁률 1.63대 1 ‘격세지감’

공천신청 마감 8개 지역구에 13명…전남은 23명 2.09대 1
새누리 광주 0.88대 1·전남 1.36대 1…국민의당 내일 마감

총선 D- 55 ▶관련기사 3·4·5면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이 4·13 총선에 나설 후보 공천신청을 마감함에 따라 각 당의 공천 작업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제 2야당인 국민의당은 오는 19일 후보 공모를 마감할 예정이어서 이번 주말께가 되면 선거구별 대결구도가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총선은 지난 17대 총선 이후 12년만에 ‘3당 체제’로 치러진다. 또 제1야당이 독식하다시피 해온 호남에서 더민주와 국민의당 간 치열한 대결이 펼쳐질 것으로 보여 총선을 향한 유권자의 관심이 과거 어느 선거 때보다 커질 전망이다. 전체 지역 선거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의 경우 야권의 분열이 승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전날 1차 공모를 마감한 더민주가 17일 발표한 지역구 공천 신청 결과에 따르면 371명이 신청, 평균 1.5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는 713명이 2.9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던 19대 총선 민주통합당 시절에 비해 신청자가 342명, 48.0% 감소한 숫자다. 특히 ‘공천 =당선’ 등식이 성립하던 호남의 경쟁률은 1.97대 1로, 19대 때 경쟁률 4대 1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등 국민의당과의 분당 여파가 크게 작용했다.

지역별로 6명의 현역 의원이 국민의당으로 건너간 광주에는 8석에 13명이 등록해 1.63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11개 의석을 가진 전남에서는 23명이 공천을 신청, 2.0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더민주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지역구 실사 등 공천심사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고 22일 공천 신청자들에 대한 면접을 시작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12일 안심번호를 활용한 첫 당내 경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경선 일정을 조정하고 있다.

새누리당도 이날 모두 829명이 공천을 신청, 평균 3.3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더민주의 지역구 경쟁률 1.51 대 1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은 것이다.

지역별로 광주에는 7명이 접수를 마쳐, 전국에서 가장 낮은 0.88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전남은 15명이 공천을 신청, 1.36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오는 20일부터 단수추천 지역, 사고 당협, 경합 지역, 선거구 변경 지역 순서로 후보자 면접을 하고 29일부터 후보자 자격심사를 벌일 계획이다. 또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선거구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것을 전제로 다음달 4일부터 17일간 지역별로 경선을 해 후보자를 확정하고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22일 공천자 대회를 연다는 잠정 일정표도 마련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원래 지역구 후보 공개 모집을 이번 한 차례로 끝내려 했지만, 아직 20대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지 않은 관계로 추가로 공모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각 당의 공천 신청자와 최종 경쟁률은 다소 늘어날 전망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내일 雨水… 봄 재촉하는 앵초 광주지역 낮최고기온이 7.2도를 기록한 17일 광주시 북구 운정동 한 화훼농가에서 직원들이 봄 소식을 알리는 형형색색의 봄꽃들을 다듬으며 출하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전남도, 낙후지역 16개 시·군 개발 10년 계획 짠다

전남도가 낙후지역으로 고시된 나주 등 관내 16개 시·군에 대해 향후 10년간 신규 지역개발사업을 발굴·추가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 계획을 통해 진입도로, 주차장, 공원 등 기반시설 사업은 국비를 전액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활성화 지역’, ‘투자선도지구’ 등 지정해 개발 우선순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도내 22개 시·군 가운데 나주·담양·곡성·구례·고흥·보성·화순·장흥·강진·해남·함평·영광·장성·완도·진도·신안 등 16개 시·군을 성장촉진지역(낙후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들 성장촉진지역 내 개발사업 면적은 93.1㎢로, 시·군 평균으로 보면 4.23㎢ 규모다. 구체적으로는 특정지역 12.1㎢, 광역개발권 20.4㎢, 개발촉진지구 41.7㎢, 신발전지역 18.9㎢ 등이다. 전남도는 올해 10월까지 이들 지역에 대해 개발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존 지역개발사업 재조정 및 통합, 향후 10년간 낙후지역 및 인근지역 연계 사업 발굴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 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김은영의 그림생각 ‘반려견’ ▶3면

파독 간호사 50년 5인조 걸그룹 활동 광주출신 노미자씨 ▶18면

‘지지부진’ 광주역 활성화 대책 결국 다시 용역…또 해 넘기나

용역 결과 최소 10개월 걸려

KTX 호남선 개통 이후 침체한 광주역에 활력을 불어넣으려는 광주시의 발걸음이 더디다. 지난해 9월 꾸려진 민관 TF(태스크포스)에서 10개월 가량 완료 기간이 필요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 광주역 활성화 현안이 해를 넘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광주시는 17일 광주역 활성화 민관합동회의를 열고 용역을 거쳐 광주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용역 전제 조건은 광주역을 존치하되 철도기능의 증대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광주역에 KTX가 진입하느냐 여부를 중심으로 역의 기능과 도시발전, 도시기능 등에 미치는 영향도 과업범위에 포함된다. 시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광주역 활성화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하고 그 방안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용역발주는 광주역 활성화 현안의 장기지연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용역발주를 거쳐 그 결과를 납품받으려면 최소 10개월 이상 기간이 필요하다. 물리적으로 올해 안에 용역 결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도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용역남발’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12년 광주발전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한 ‘광주역 역세권 개발 기본계획’, 2012년 광주역 유휴부지 및 역세권 개발방향(광주시·한국교통연구원), 2014년 철도폐선-유휴부지의 주민친화적 공간으로서의 활용방안 연구(국토부) 등 비슷한 범주의 용역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용역이 인프라 구축 등을 주제로 다뤘다면 향후 발주하게 될 용역에는 광주도시 미래를 조망하는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지난 4월 호남고속철도 개통과 함께 KTX 진입이 중단된 광주역의 기능변화에 따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광주역을 존치하기로 결정, 활성화 방안을 찾았다. 현재 광주역의 이용객은 KTX 개통전에 비해 3분의 1로 줄었으며, 주변 상권이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미국 F-22 스텔스 전투기 4대가 17일 평택 오산공군기지 상공을 날고 있다. /연합뉴스

스텔스 F-22 랩터 한반도 상공 ‘무력시위’

4대 중 2대는 오산기지 잔류

세계 최강 스텔스 전투기인 미국의 F-22 랩터 4대가 17일 한반도 상공에 긴급 출동했다. 〈관련기사 8면〉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잇단 도발에 대한 강력한 무력시위이자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게 추가 도발을 하지 말 것을 강력히 경고하는 메시지로 분석된다.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 기지에서 출발한 미국 F-22 전투기 4대는 이날 낮 오산공군기지 상공에서 저공비행을 하며 위용을 과시했다. 4대가 동시에 한반도 상공에 출격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우리 공군 F-15K 4대와 주한미군 F-16 4대가 저공비행하는 F-22와 함께 비행했다.

F-22 4대는 저공비행 후 오산기지에 착륙했다. 이후 2대는 가데나 기지로 복귀하고 2대는 오산기지에 당분간 잔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지난달 10일에는 3000㎞ 떨어진 곳에서 북한 지휘부를 정확히 타격할 수 있는 무기를 탑재한 B-52 장거리 폭격기를 오산공군기지 상공으로 출격시키기도 했다. 미 해군의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인 노스캐롤라이나호도 지난 16일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했다.

/연합뉴스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신성자동차㈜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 Tel. 062)226-0001
정부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C 200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심연비 : 10.8km/ℓ, 고속도로연비 : 14.1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00 Avantgarde 1,991cc, 1,505kg, 자동7단, 복합연비 12.1km/ℓ (도심연비 : 10.8km/ℓ, 고속도로연비 : 14.1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4g/km • C 220d Avantgard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심연비 : 15.1km/ℓ, 고속도로연비 :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20d Exclusive 2,143cc, 1,625kg, 자동7단, 복합연비 17.4km/ℓ (도심연비 : 15.1km/ℓ, 고속도로연비 : 21.3km/ℓ), 1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11g/km • C 250 d 4MATIC 2,143cc, 1,7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5.5km/ℓ (도심연비 : 13.7km/ℓ, 고속도로연비 : 18.4km/ℓ), 2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26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